

'97 제2검정소 최우수 농장상 수상한 광암축산



▲지난 2월 5일 제2검정소에서 이내홍 대표(왼쪽)와 이내선 농장장이 함께 최우수농장 상패를 들어보이고 있다.

지난 2월 5일 이내홍 대표와 이내선 농장장이 형제끼리 양돈장을 운영하고 있는 전남 나주의 광암축산(노안면 유곡리 산48번지)이 제2종돈능력검정소가 선정한 최우수 농장으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광암축산(전화:0613-35-8404)은 이미 94, 95, 96년에 연속 3회에 걸쳐 제2검정소 우수농장으로 선정된 바 있어 이번 최우수 농장상은 농장 돼지계통이 충분히 안정된 상태에서 점진적으로 진보되고 있는 것을 눈으로 보는 듯하다.

오랜 전산관리에 의한 필연적인 계통관리

광암축산이 능력이 우수한 계통의 돼지를 생산해 내는 것은 거의 필연적이라 할 수 있다. 81년에 첫발을 디딘후 얼마되지 않아 84년부터 시작한 전산관리는, 그 당시로는 무척이나 어려움이 많았으나 지금은 이미 광암축산 나름대로의 시스템이 정착되어 있을 정도이다.

84년 호주에서 하고 있는 기준연도를 가지

는 기존과 약간 다른 농장 검정프로그램을 도입하여 이제는 내부분석용은 물론 외부분석용으로도 쓸 수 있으며, 자체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한 입식보고서와 혈통발급증명서를 만들수 있는 농장검정시스템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

이내홍 대표는 분만사 담당자를 겸임하는 전산기사 1명을 따로두어 현재에도 빈틈없는 전산처리를 통한 혈통관리를 하고 있다고 말하며, "현재 우리의 육종산업이 돼지의 등지방을 너무 줄이는 데만 중점이 되고 있다. 이제는 이미 얇아진 등지방 보다는 증체율에 중점을 주어 수익성이 더 높고, 한국인의 기호에 맞는 돼지를 생산할 방침이다"라고 덧붙였다.

IMF위기를 기회로 삼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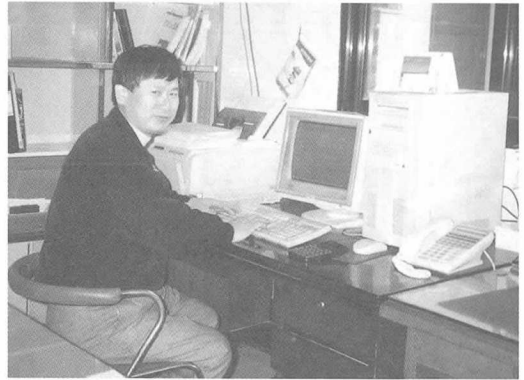
광암축산은 5년이상 장기 근속자가 많은 농장관리인원 8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문화된 인력을 바탕으로 검정소 총 출품두수가 약 2천여두를 상회하며 시상경력도 화려해 제1종돈능력검정소와 제2종돈능력검정소에서 각 20여회의 최우수돈배출 경력을 가지고 있다.

계통조성을 위해 주로 호주에서 종돈을 도입하고 있으며, 혈통을 계속해서 유지해 나가면서 잡종강세의 효과를 얻기위해 폐쇄육종과 개방육종의 중간형태의 육종방법을 택하고 있다.

광암축산 이내홍 사장은 특히 국가경제위기라는 IMF상황을 맞이하여 양돈업에 타격을 입기보다는 '위기를 기회로 삼는다'는 생각으로 기존 모든 500두 규모를 700두로 올리는 한편 (주)팜스(Farms)라는 육가공공장을 계열화 농장들과 함께 맡아서 일본수출을 위해 현재 동분서주하고 있다.



▲광암축산 농장가족들과 농장을 배경으로.(우측에서 두번째가 이내홍 사장)



▶이내홍 사장이 직접 PC로 농장점검을 하고 있다.

광암축산은 매일 발생하는 일일자료와 예방백신프로그램 등의 업무를 전산화하여 보관한다.

이에의해 예방위주의 백신접종을 철저히 지켜 나갈수 있으며, 주 3회에 걸친 소독으로써 우수한 능력과 더불어 질병없는 종돈을 공급하는데 정성을 다하고 있다.

광암축산은 출품두수 365두, 합격률 63.4%로 제2종돈능력검정소에서 자체 선정기준에 따라 득점 200.9점을 받아 최우수농장으로 선정되었다.

또한 이번에 이내홍 대표는 의학박사 학위를 취득하여 주위의 찬사를 받는 등 앞서가는 대표에 앞서가는 전산화 종돈장을 실감하게 하였다. <취재 : 조진현> 義豚